새 연재

본 연재물은 승리제단 김상욱 신도회장이 저술한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1)

전도관의 박태선님과 승리제단의 조희성님

연재를 시작하며

박태선 장로와 그분이 이끈 전도관 역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매우 잘못되어 있다. 그분을 따랐던 대부분의 신자들도 그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분은 왜 전도관을 세웠으며, 잘 나가던 전도관을 왜 돌연 해산하였으며, 자신을 믿고 따르던 교인들을 왜 내쫓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분명 있다.

박태선 장로는 성경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 병자들은 병이 치유되는 신유(神癒)의 은혜가 일어나며, 봉사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꼽추의 허리가 펴지는 불가사의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러한 소문에 전국의 기독교인들은 앞 다투어 박 장로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에 위기를 느낀 기독교계는 박 장로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었다.

그러자 박 장로는 전도관(傳道館)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모아 신앙공동체를 세웠다. 소사 신앙촌을 필두로 덕소 신앙촌, 기장 신앙촌을 차례로 건설하는 등 잘 운영하여 나가던 중 1980년에 이르러 박 장로는 돌연 전도관을 해산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잘 나가던 사업을 고의로 부도를 내고, 열렬한 신도들을 갖은 누명을 씌워 내쫓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천상천하의 유일한 상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나, 전도관 조직을 가지고 5만 년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을 마귀 옥에서 구출하여 모처(某處)에 모셔놓았다는 등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계속 쏟아냈다. 그 후 몇 년 간 박 장로가 행한 언행은 그를 믿고 따랐던 150만 명의 전도관 교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암호였다.

필자도 19세부터 박 장로를 하늘의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박 장로의 마지막 행적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그러다 승리제단에 입교하여 조희성 선생의 말씀을 듣게 되자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리게 되었다. 사이비 이단으로만 잘못 알려진 박태선 장로와 전도관의 왜곡된 본래의 모습을 본 연재물은 자세히 드러내 밝혀줄 것이다.

편집자 주

먼저 하고 싶은 말

전도관의 주인공이신 박태선님과 승리제단의 주인공이신 조희성님의 등장은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인류역사 6,000년 만에 완벽하게 성공하였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즉 인류구원의 역사는 이 시점으로부터 희망차게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인생들은 6,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마귀의 미몽(迷夢)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서광이 이 암흑세계에 비춰지기 시작했음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도관과 승리제단을 사이비 종교집단이고 박태선님과 조희성님을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도 마귀가 주는 미몽(迷夢)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져 박태선님과 조희성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성경과 조상님들이 후손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한 예언을 토대로 만천하에 참 구세주의 출현을 알리려고 한다.

인류는 구세주의 존재를 갈구하고 있으면서 그 존재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는 줄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예수와 같이. 그런데 예수는 지금 만천하에 가짜 구세주임이 밝혀지고 있다.

예수는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마 24:5. 24. - 정말 예수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고 했다. 그러나 예수가 가짜 구세주로 밝혀진 이상 예수가 말한 제일 첫번째 거짓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자신임이 분명해졌다. 문제는 예수 외에도 무수한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인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을 거쳐 어떤 단계를 밟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출현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구세주 그리스도의 출현과정은 삼신(三神)이 출현(出現)하여 일인(一人)으로 합일(合一)되어 출현하시게 되어 있다. 동양사상(東洋思想)에 능통(能通)하다는 분들은 천신(天神), 지신(地神), 인신(人神)의 삼신(三神)이 인신(人神)인 인존시대(人尊時代)로 끝마침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삼신(三神)의 일체(一體)로의 완성(完成)은 분명 세 분 하나님이 차례로 사람 몸을 입고 출현하시어 세 분 하나님이 일체로 완성되는 역사가 직접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묵 3:21). 격암유록 은비가에는 三眞神中一人出(삼진신중일인출) 三聖一體一人出(삼성일체일인출)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一人出(일인출) 되어 출현하신 분이 구세주 그리스도가 된다.

세 분 하나님이 각각 사람 몸을 입고 출현한 후에 한 분 하나님으로 일체가 되어 완성을 하시게 되는 분이 구세주이신데 이와 같이 세 분 하나님이 단계를 거쳐서 한 분 하나님으로 완성되어 가는 모습은 전도관의 박태선님과 승리제단의 조희성님의 상관관계를 알지 못하면 전혀 알아차릴 수 없으니 두분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전도관의 박태선님

1917년 11월 22일, 평안남도 덕천군 덕천읍 남리 148번지에서 출생 - 정사생(丁巳生)

박태선님은 전도관을 창설하고 세 개의 신앙촌을 세우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세상말로 하면 대 종교 운동을 펼친 분이다. 그 분은 일개 종교운동을 위한 부흥강사의 사명을 받은 분이 아니다. 그 분은 감람나무요(묵 11, 슥 14), 동방의인이요(사 41), 승리자(묵 2, 3)이다. 격암유록에는 박태선님의 함자와 그 분이 이룩한 전도관 및 신앙촌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 이를 보아도 이 분은 보통 평범한 분이 아닌 하늘의 중요한 사명을 받아 이루기 위해 출현한 중요한 분임을 알 수가 있다.

가. 박태선님의 함자(銜字)

十八卜術誕生하니 三聖水源 三人之水
십팔복술탄생 삼성수원 삼인지수
羊一口의 又八일세(桃符神人)
양일구 우팔 도부신인

十八卜(십팔복)의 글을 합하면 朴(박)자가 되고 三人之水(삼인지수)의 글을 합하면 泰(태)자가 되고 羊一口(양일구)에 八(팔)자를 더하면 善(선)자가 된다.

나. 전도관(傳道 館)

人惠無心村十八退 丁目雙角三卜之人
인혜무심촌십팔퇴 정목쌍각삼복지인
千口人間以着冠也 (道下止)
천구인간이착관야 도하지
人惠無心村十八退 → 傳(전)
인혜무심촌십팔퇴

사람 인(人) 변과 은혜 혜(惠)에서 마음 심(心)을 없애라고 했다. 그렇게 하니(重)가 되고 마을 촌(村)자에서 십팔(十八)을 퇴(退)해 버리라고 했으니 오른편에 마디 촌(寸)자만 남게 된다. 이렇게 하여 남은 글자를 짜 맞추어 보니 전할 전(傳)자가 된다.

丁目雙角三卜之人 → 道(도)
정목쌍각삼복지인

정목(丁目)에 쌍각(雙角) 즉 뿔 두 개를 얹으면 머리 수(首)자가 되고 삼복지인(三卜之人)을 모으면 쉬엄쉬엄갈 착(辶)이 되니 머리 수(首)자와 짜 맞추면 길 도(道)자가 된다.

千口人間以着冠也 → 館(관)
천구인간이착관야

千口人은 집 사(舍)자가 되고 여기에 以着冠 즉 관(官)을 붙이라고 하였으니 집 관(館)자가 된다. 여기에서 以着冠의 갓 관(冠)자가 벼슬 관(官)을 대신하는 이두 문자로 숨겨져 있다. 이와 같이 도하지(道下止)에 예언된 것을 파자(破字)로 풀이하니 전도관(傳道 館)이라는 고유명사가 나온다.

다. 신천촌(信天村)-신앙촌(信仰村)

一心合力 全家族이 弓乙村을 찾아보소
일심합력 전가족 궁을촌
牛聲之村見不牛로 人言一大尺八村을
우성지촌견불우 인언일대척팔촌
恨心하다 草路人生 弓乙村을 모르거든
한심 초로인생 궁을촌
呼天村을 先尋後에 呼母村을 更問하소 (出將論)
호천촌 선심후 호모촌 갱문 출장론

人言一大尺八村
인언일대척팔촌

人言은 믿을 신(信)자이다. 一大는 하늘 천(天)자다. 尺八村은 一尺 = 十寸 이니 十寸에 八을 더하면 마을 촌(村)자가 된다. 이렇게 하여 얻은 글자가 신천촌(信天村)이다. 여기서 하늘 천(天)자는 우러를 앙(仰)자와 같은 뜻이 있으므로 신앙촌(信仰村)과 같은 뜻이 된다.

또한 박태선(朴泰善)님은 하도낙서(河圖洛書)의 육도삼략(六韜三略) 중 방위(方位)로는 동방(東方)을 맡은 목운(木運)이요, 계절(季節)로는 봄(春)이다. 또 격암유록(格菴遺錄) 가사총론(歌辭總論)에 東方甲乙三八木(동방갑을삼팔목) 靑帝將軍靑龍之神(청제장군청룡지신)이라 했으니 이 분의 색깔은 청색(靑色)이다.

승리제단의 조희성님

1931년 6월 28일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감정리 497번지 출생- 신미생(辛未生)

승리제단의 조희성님은 인류의 구세주요 정도령이요 생미륵불이다.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죽음의 영(靈)임을 선포하여 이 주체의식만 없애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생(永生)의 대도(大道)를 활짝 열어 놓으셨다. 격암유록에는 그 분의 성함과 승리제단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

가. 조희성님의 함자(銜字)

曺氏姓 : 人生秋收糟米端風驅飛
조씨성 인생추수조미단풍구비
糟飄風之人 弓乙十勝 - 賚 41 章
조표풍지인 궁을십승 새 장

인생을 추수하러 오시는 구세주는 지게미 조(糟)에서 쌀 미(米)자를 바람 끝(端風)에 몰아(驅) 날려(飛)보내면 무리 조(曹 = 曺)만 남게 되니 구세주는 조씨 성으로 오시는데 지게미 조(糟)자에서 쌀 미(米)자를 회오리바람에 날려보낸 사람 즉 조(曺)씨가 궁을십승(弓乙十勝)이다. 정확하게 조(曺)씨 성으로 오실 분임을 예언하고 있다.

熙星의 銜字 : 欲識蒼生保命處
희성 함자 욕식창생보명처
吉星照臨眞十勝 (初章)
길성조림진십승 (초장)

영생의 지식을 배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길한 별이 밝게 비치는 곳 즉 희성(熙星)이라는 존함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 곳인데 바로 이 분이 진짜 십승이다. 역시 정확하게 희성(熙星)의 함자가 예언되어 있다.

나. 승리제단(勝利祭壇)

十勝十勝何十勝
십승십승하십승
勝利臺上眞十勝(初章)
승리대상진십승 (초장)

십승십승하는데 무엇이 십승인가? 승리대상 즉 승리제단 단상에 서서 강론을 하시는 분이 참 십승이다.

하도낙서(河圖洛書)의 육도삼략(六圖三略)에는 방위(方位)로는 서방(西方)을, 계절로는 가을(秋)을 맡은 금운(金運)이다.

西方庚辛四九金 白帝將軍白虎之神 (歌辭總論)

색깔로는 백색(白色)이다.*

알려드립니다

본 연재물은 지면 관계상 8면 발행하는 매월 1일자 신문 7면에 고정 연재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는 게재되지 않습니다.

662호(5월 1일자)에 계속 연재됩니다.

도덕경 해설

太上, 不知有之

태상 부지유지

이 장은 크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는 듯하나 의외로 도덕경 전체 내용을 꿰뚫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되기 쉬운 부분 중의 하나이다. 노자의 도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는지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해시키고 알려서 그 도를 쫓아 도통하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간결하고 아름다운 필치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 입각해서 노자의 저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의 진수를 얻으려면 좀 더 앞뒤 문장을 신중히 살펴보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앞 장에서 도는 기, 영원한 생명, 순수의식, 내면의 평화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 도는 곧 하늘이라 하였다. 하늘은 곧 우리가 신앙하고 경외하는 절대의식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신神)이라고도 명명할 수 있겠다 하는 이치를 살펴보았다. 바로 이 장에서는 인간과 우주 만물이 각기 다른 데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근본자리인 도(기氣)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하여 점점 그 도에서 멀리 벗어나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도에서 멀어졌던 인간이 그 도로 원시반본(原始反本)하여야 완성이 되어 영원한 행복(천국, 극락, 이상향)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 목적을 도외시하고 도를 하나의 살아가는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인생이 다시 그 근본자리인 도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도를 깨치고, 도를 닦아 완성의 경지(신인합일)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진실한 목적인데, 이를 왜곡 오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삶의 한 부분의 부산물로 여긴다면, 결단코 인생은 도와 합일되는 경지와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다. 도와 합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다한들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나서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허망한 삶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모르고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후회스럽고 아둔한 삶을 사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인생의 본향을 똑바로 알고 나아갈 길을 믿어 의심치 않고 나아갈 때, 인생의 참다운 목적과 가치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본향을 떠나온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반성하고 깨닫는 명심보감으로 삼자.

太上,不知有之(태상,부지유지): 큰 세상(태평성대한 세상), 즉 도가 충만한 세상 아래 도가 항상 상존하고 있으나, 그 도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태고적 태평성대한 시절에는 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느끼지 못했지만 항상 도가 충만한 세상을 말한다.

其次,親而譽之(기차,친이예지): 그 다음으로 도를 가까이하고 기리는 세상임을 말한다.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은 도를 잃어가고 해서 도를 인위적으로 가까이 하려는 세상을 말한다.

其次,畏之(기차,외지): 그 다음으로 도와 멀어지게 되어 사람들이 도를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다.

도 가운데 살 때는 뭣이 부족한 것을 몰랐고, 너와 나라는 분리된 의식도 없었건만 도를 잃고 멀어지니 너와 나를 별개의 존재로 보고 서로 두려워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다.

其次,侮之(기차,모지): 그 다음으로 도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기에 이르렀다.

거기에다 가일층 서로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매몰찬 세상이 돼버렸다.

故信不足焉(고신부족언): 그런고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게 되고

고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세상이 돼버린 것이다.

有不信焉(유불신언), 도가 없는 세상에서 불신만이 남게 되었다.

도를 망각하고 멀어지니 세상에서는 불신만 남게 되었다.

悠兮其貴言(유혜기귀언): 도가 없는 세상에서는 눈치만 보고 단지 그 말만을 귀하게 여긴다.

도가 없다보니 서로를 믿지 못하고 쉽사리 일을 이룰 수 없게 되니 서로 눈치만 보고 도의 성스러움과 아름다움만을 귀하게 말하고 찬양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다.

功成事遂(공성사수):그러면서 공을 이루고 일을 성취한다.

도가 작용을 해야 공을 이루고 일을 성취하건만 사람들은 공을 이루고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百姓皆謂我自然(백성개위자연): 백성들이 모두가 이르기를 '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한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모두 이르길 업적과 공로와 성공을 스스로 이뤄낸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세상은 도가 있어야 생명의 세상, 평화의 세상, 치적의 세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도가 끼어들지 않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제 스스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인간들은 교만하여 자기가 잘 나서 그 모든 일을 이뤄낸 것처럼 교만하고 방자한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그 공로를 도, 즉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절대적 우주 본체의 조화능력에 머리 숙이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